

KISTEP 통계 브리프 2007-35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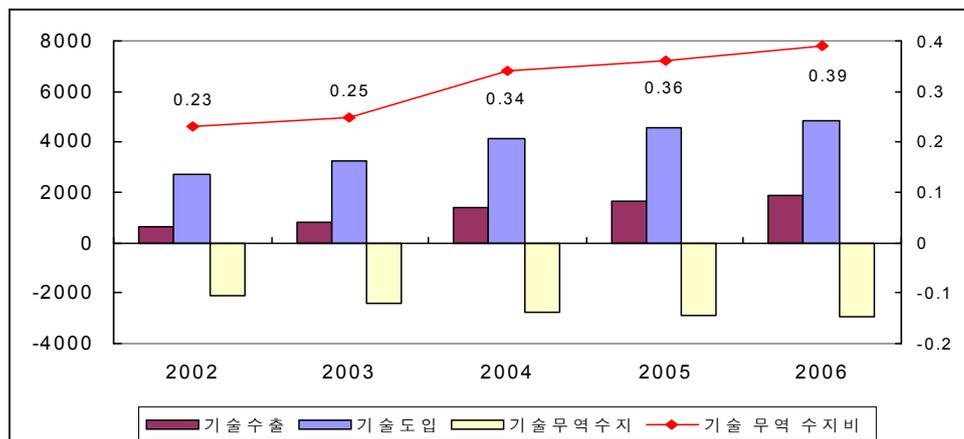
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수지 현황



□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

-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의 규모는 2002년 33억 6000만달러에서 2006년 67억 3400만달러로 연평균 19% 증가함
 - 기술수출은 6억 3800만달러(2002년)에서 18억 9700만달러(2006년)으로 급격히 증가함(연평균 증가율 31%)
 - 기술도입도 27억 2100만달러(2002년)에서 48억 3800만달러(2006년)으로 연평균 15.4% 증가
 - 기술무역 수지비(기술수출/기술도입)은 2002년 0.23에서 2006년 0.39로 개선되었으며 매년 개선되는 추세임
 - 기술무역수지는 매년 그 적자폭(2002년 20억8300만달러-> 2006년 29억 4100만달러)이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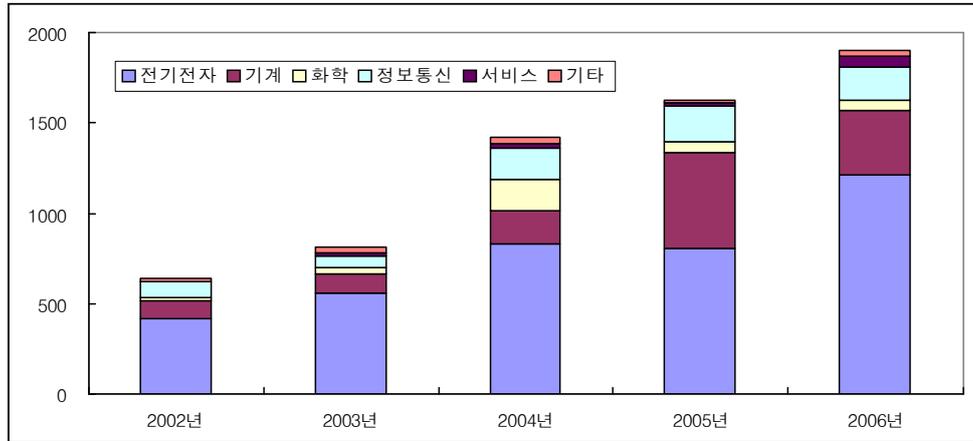
<그림 1>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 (2002-2006년) (단위: 백만달러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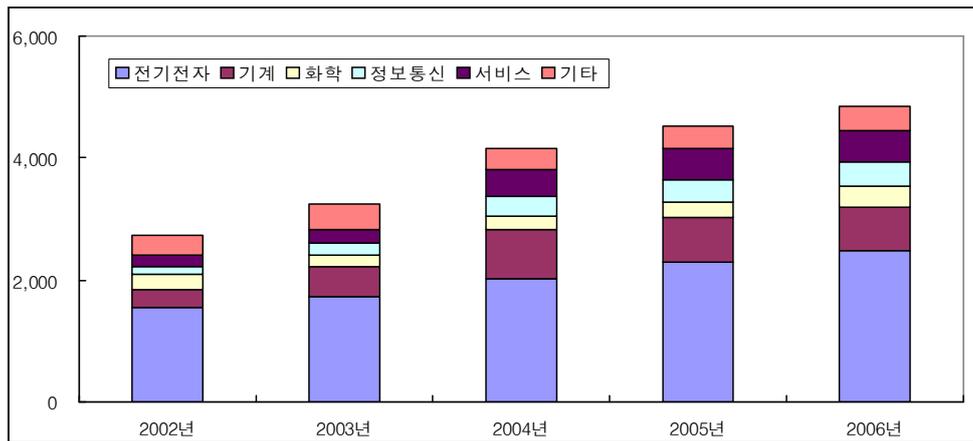
□ 산업별 기술무역 추이

- 우리나라의 기술수출, 도입을 선도하는 산업은 전기전자, 기계, 정보통신, 화학, 서비스 등임
 - 전기전자 산업의 수출 비중은 2006년 63.9%이며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 도입 비중도 2006년 51.5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함
 - 기계분야는 기술 수출 부문에서 최근 5년간 가장 크게 증가(연평균 40% 증가)하였음
-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전기전자임
 -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무역수지는 2006년 12억 7800만달러이며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은 43.5%임
 - 적자규모는 서비스, 기계, 화학, 정보통신 순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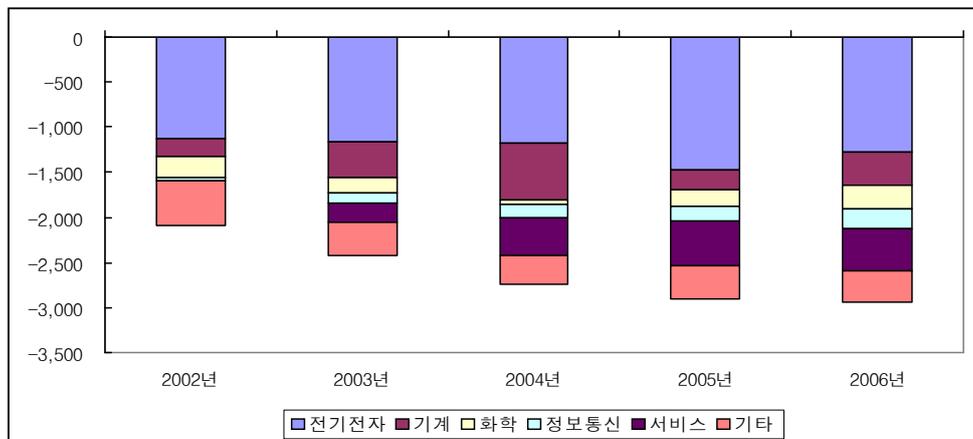
<그림 2> 산업별 기술 수출 추이 (2002년-2006년) (단위 : 백만달러)



<그림 3> 산업별 기술 도입 추이 (2002년-2006년) (단위 : 백만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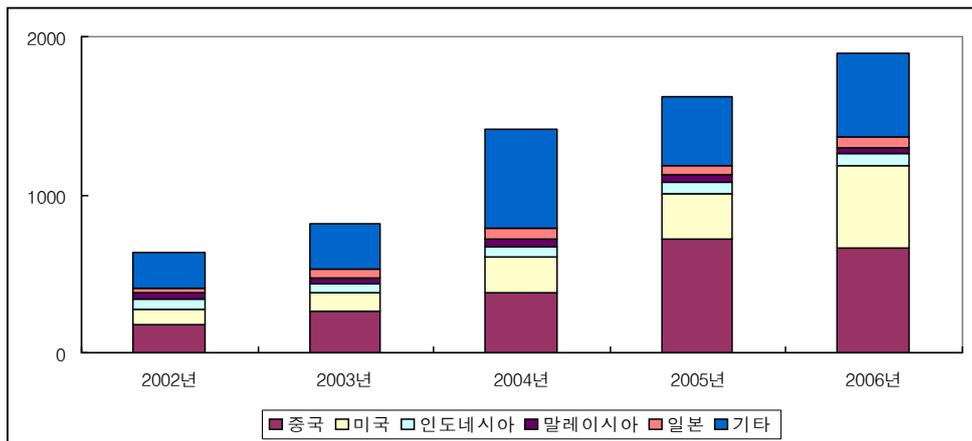
<그림 4> 산업별 기술 무역 수지 추이 (2002년-2006년) (단위 : 백만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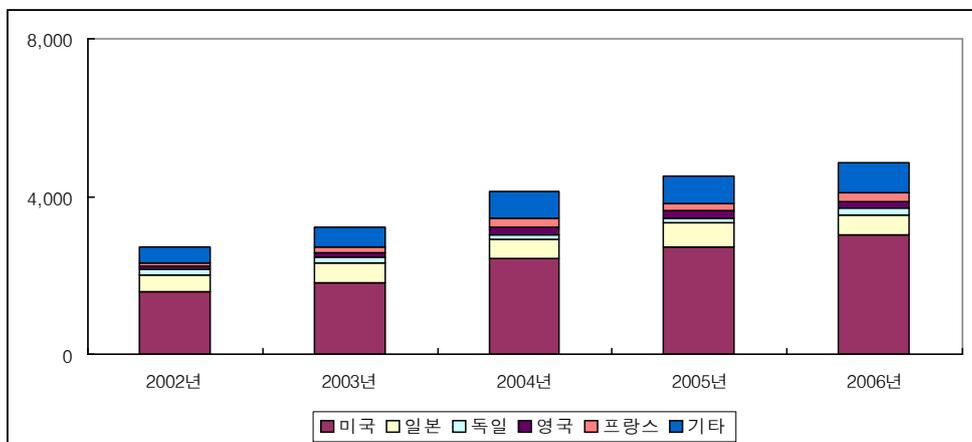
□ 국가별 기술무역 추이

- 우리나라의 기술을 수출하는 주요국으로 중국, 미국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일본 등임
 - 중국에 2006년 6억6610만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35.1%를 차지
-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도입국은 미국, 일본, 프랑스, 영국, 독일 등임
 - 이들 국가의 비중은 2002년 이후 80%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미국에 대해 의존도가 높음 (비중 62.3%(2006년))
- 기술무역수지의 적자는 주로 미국, 일본에 의해 발생
 - 미국에 대한 적자는 2002년 15억달러(전체비중 72.6%)에서 2006년 25억달러(전체비중 85.0%)로 급격히 증가하며 의존도가 심화됨
 - 반면 일본의 경우 적자의 비중이 17.7%에서 15.5%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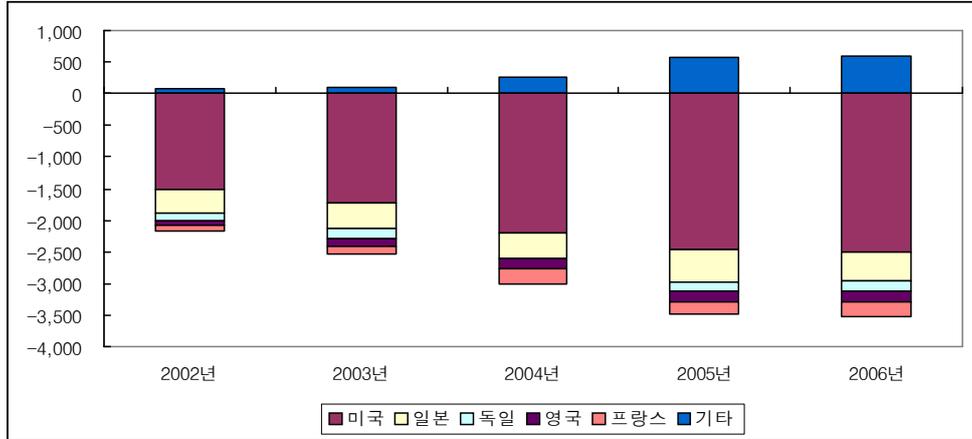
<그림 4> 주요 국가별 기술수출 추이(2002-2006년) (단위 : 백만달러)



<그림 5> 주요 국가별 기술도입 추이(2002-2006년) (단위 : 백만달러)



<그림 6> 주요 국가별 기술무역수지 추이(2002-2006년) (단위 : 백만달러)



□ 시사점

-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적자폭은 증가하고 있음
- 그러나 기술무역수지비는 매년 개선 추세임
- 우리나라의 기술 무역에서 전자전기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
- 미국에 대한 기술도입의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감소

* 자료원 : 한국산업진흥협회,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2007

* 자료관련 문의 : 혁신지표팀 (02-589-2829, 2949, 2892)